

이은비 9골... 한국 4강 확정

세계 J여자핸드볼, 우승후보 독일에 24-22 역전승

20세 이하 여자핸드볼 대표팀이 7연승 행진으로 제17회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4강에 진출했다.

대표팀은 25일 서울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열린 본선 1그룹 독일과의 경기에서 24-22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앞선 24일 열린 세르비아와의 본선 경기에서도 38-30으로 승리를 거뒀던 한국은 예선경기 포함 7경기에서 전승을 거두며 27일 노르웨이와의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4강 진출을 확정 지었다.

초반 경기 흐름은 독일이 주도했다. 독일의 탄탄한 수비에 막힌 한국은 초반 4

골차까지 뒤지며 고전을 면치 못했다. 한국은 이은비의 골로 9-9 동점을 만들기도 했지만 독일의 공세에 밀리며 11-12로 전반을 마감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이은비가 독일의 골문을 가리며 12-12 동점을 만들었지만 패스미스 등 실수가 이어지면서 한국은 16-19까지 뒤처졌다.

측면 공격으로 한국이 분위기를 반전에 나섰다. 김선화와 정유리의 연속 득점으로 1점 차까지 따라붙은 뒤 '주포' 유은희의 7m 슛로가 성공하면서 승부는 19-19 원점으로 돌아갔다.

김선화와 유은희의 골로 한국이 21-19까지 앞서나갔지만 독일의 추격도 만만치 않았다. 한국의 실수를 틈타 독일이 역습으로 동점에 성공했다.

이은비가 다시 한 번 해결사로 나섰다. 이은비가 전금같은 골로 재역전을 이끈 뒤 이세미의 추가골이 나왔다. 골키퍼 박소리의 결정적인 선방까지 나오자 다급해진 독일이 오버스텝을 저지르며 자멸했다.

결국 뒷심 대결에서 앞선 한국이 남영신의 골로 24-22 승리를 결정지었다.

이은비는 9골을 넣으며 4강 진출을 이끌었고, 이세미와 김선화가 각각 5골과 3골을 기록했다. 준결승 티켓을 거머쥔 대표팀은 27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노르웨이와 본선 마지막 경기를 맞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5일 오후 서울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열린 2010 핸드볼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2차리그에서 이은비가 독일의 수비를 뚫고 슈트를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술 후유증 털고 부활 샷

25일(한국시간) 에비앙 마스터스 골프대회에서 모건 프레스넬(미국)과 우승을 놓고 격돌한 신지애가 아이언 샷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남부대 사격 단체전 우승

문광부장관기 공기소총

남부대가 제39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사격대회 공기소총 단체전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남부대는 24일 임실종합사격장에서 열린 대회 남부대 공기소총 단체전 결승에서 송수주·김현호·안재성·이상진을 앞세워 합계 1772점으로 한국체대(1770점), 동국대(1766점)를 누르고 1위에 올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하계 중·고스쿼시선수권대회

동일전자정보고 김재광 우승

동일전자정보고 김재광(왼쪽에서 두번째)이 제 3회 하계중고 스쿼시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김재광은 지난 23일 의정부 석천스쿼시클럽에서 끝난 대회 결승에서 경기 사우고 김성집을 3-0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 제13회금곡매남녀중고대회 8강전에서 김성집에 1-3으로 패했던 김재광의 설욕전이었다.

김재광은 1세트 10-10 타이브레이크에서 선취점을 올리며 12-10으로 승리를 거둔 뒤, 2세트에서도 김성집의 낯익이 계속해서 테니스 네트를 때리는 등 상대 실수가 이어지면서 손쉽게 승기를 잡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세계장애인사격 한국 종합1위

한국이 2010 세계장애인사격선수권대회에서 막판 공기소총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추가하며 종합순위 1위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인 25일(이하 한국 시간) 혼성 공기소총 복사 SH2 종목에 출전한 한국은 이지석(경기일반), 류호경(청주시청), 강주영(강원일반)이 합계 1천798점을 쏴 2위 후주를 1점 차이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은 이로써 대회 막바지에 금메달 1개를 추가하며 합계 금메달 8개, 은메달 8개, 동메달 3개로 종합순위 1위의 쾌거를 달성했다. /연합뉴스

'고미영과 약속' 김재수씨 가셔브룸 1봉 도전

히말라야 8천m급 14좌 완등을 이루지 못하고 숨진 고미영 씨와 약속을 지키기 위한 김재수(50) 대장의 도전이 계속된다.

김 대장은 오는 26일(이하 현지시간) 히말라야 카라코람 산맥에 있는 가셔브룸 1봉에 오르기 위해 베이스캠프를 떠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는 당일 캠프 I, 27일 캠프 II를 거쳐 28일 해발고도 7천m에 있는 캠프 III에 도착한 뒤 29일 자정께 정상 공격에 나설 계획이다.

김 대장은 "사흘째 폭설이 내리고 있어서 출발을 망설여 왔다"며 "현지 기상예보에 따라 잠정적으로 일정을 짜놓았다. 밤 12시에 정상으로 나서면 29일 오전 중에는 정상에 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장이 도전하려는 가셔브룸 1봉은 해발고도 8천68m로 히말라야 14개 봉우리 가운데 11번째로 높은 곳이다. 김 대장은 가셔브룸 1봉과 안나푸르나(8천91m)를 등정하면 히말라야 14좌를 모두 오르게 된다. /연합뉴스



히말라야 14좌를 완등한 산악인은 전 세계에서 22명으로 한국 산악인은 엄홍길, 박영석, 한왕용, 오은선 대장 등 4명이다.

김 대장이 히말라야 14좌를 촉박하게 완등하려고 고집하는 배경에는 11개 봉우리를 함께 오른 고미영 씨와 약속이 자리잡고 있다.

그는 코오롱스포츠의 후원을 받아 고 씨와 함께 '히말라야 14좌 완등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고 씨가 작년 7월 히말라야 낭가파르밧(8천125m)을 함께 등정하던 하산하다가 변을 당했다. /연합뉴스

U-20 여자월드컵 北, 4강 진출 실패

독일에 0-2 패

북한이 2010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U-20) 여자월드컵에서 10명이 싸운 끝에 개최국 독일에 져 4강 진출에 실패했다.

북한은 25일(이하 한국시간) 보훔에서 열린 대회 8강 경기에서 독일에 0-2로 졌다.

2006년 러시아 대회 챔피언 북한은 4년 만의 정상 탈환을 노렸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반면 독일은 2004년 태국 대회에 이어 통산 두 번째 우승 꿈을 이어갔다.

북한은 전반 43분 알렉산드라 포프에게 선제 결승골을 내줬다.

이번 대회에서 4경기 연속골을 터트린 포프는 7골로 대회 득점왕 경쟁에서 성큼 앞서

나갔다.

전반을 0-1로 끌려간 채 전반을 마친 북한은 이미 전반 15분에 한 차례 경고를 받았던 최미경이 후반 8분 두 번째 열로카드를 받고 퇴장당하면서 더욱 힘들게 경기를 풀어갔다. 수적 열세에서도 만회를 위해 안간힘을 쓰던 북한은 후반 24분 질비아 아르놀트에게 쐐기골을 얻어맞고 주저앉았다.

슈팅 수 25-6, 유효슈팅 수 13-2를 비롯해 볼 점유율에서도 60-40으로 크게 앞설 만큼 독일의 완승이었다.

최광서 북한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경기였다. 독일은 매우 힘든 상대였다. 체력적인 면에서도 매우 강했다. 오늘 좋은 팀을 상대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a clothing store, featuring a woman in a white dress and various clothing items. Text includes '남품하는 손님집대용 물품' and '공상도가로 판매실시'.

Large advertisement for '산행 안내' (Hiking Guide) with multiple columns of text and small images of hikers and trails.